

# 코로나에도 할 수 있는 건 음식점·주점 뿐?

## 지난해 하반기 취업자 현황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업종 취업난이 지속된 가운데 광주지역 음식점 및 주점업 취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7년 연속 농업 취업자 비중이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

21일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하반기 취업자는 광주 74만9000명·전남 98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각각 1만3000명(-1.7%), 1만1000명(-1.1%) 감소했다.

전국 취업자는 270만88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2만1000명(-1.5%) 줄었다.

이 기간 동안 세운(5.9%), 전북(2.5%), 대전(0.2%) 등 3개 시도만 취업자가 증가했다.

지난해 하반기 광주 취업자 74만9000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종분류)은 음식점 및 주점업으로, 전년보다 3000명(5.0%) 많은 6만1000명이 이 업종에서 일을 했다.

전국 음식점·주점업에 이어서는 교육 서비스업(6만명), 소매업(자동차 제외·5만7000명), 보건업(4만9000명), 사회복지서비스업(4만4000명) 순으로 많았다.

음식점·주점업 취업자는 지난해 하반기에만 20만7000명(-9.6%) 감소하며 코로나19 타격을 오롯이 반영했다.

반면 이 업종 취업자가 늘어난 지역은 광주와 제주 등 2곳 뿐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다른 사·도와 달리 광주 음식점·주점업 취업자가 증가한 건 60대 자영업자의 창업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며 "지난해 하반기 숙박·음식점업 60대 이상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전년 같은 기간 보다 2300명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 2017~2018년 자동차 산업이 휘청이면서 덩달아 음식·주점업종 취업자가 크게 줄었다"며 "지난해에는 이 기간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역별 고용조사가 시행된 지난 2013년부터 광주지역에서는 교육 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2017년(소매업)을 빼고 매년 1위를 차지해왔지만, 지난해 하반기에는 이를 제치고 음식점·주점업 취업자

광주 74만9000명 중 6만1000명...전년비 3000명 늘어  
통계청 "고용원 없는 60대 이상 자영업 2300명 증가한 탓"  
전남, 농업 분야 2만9000명 증가 20만2000명 '7년째 1위'

가 가장 많았다. 교육 서비스업 취업자는 전년보다 3000명 줄어든 6만명으로 집계됐다.

하반기 기준 광주 음식점·주점업 취업자는 4만2000명(2013년)→5만2000명(2014년)→5만9000명(2015년)→5만9000명(2016년)→5만5000명(2017년)→5만1000명(2018년)→5만8000명(2019년) 등 4만~5만명 선을 들락거렸는데,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취업자 수가 6만명을 넘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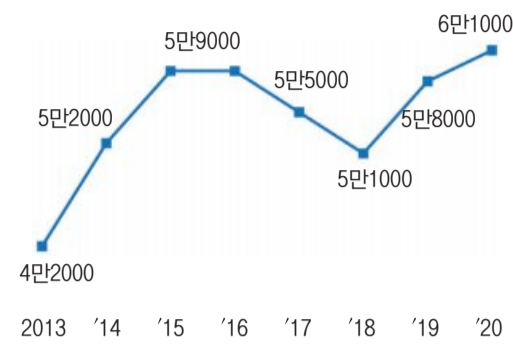
전남에서는 농업 부문 취업자 수가 7년 연속 1위를 지켰다. 지난해 하반기 농업 취업자는 20만2000명으로, 전남 전체 취업자(98만8000명)의 5분의 1

(20.4%)을 차지했다. 지난 2019년(17만3000명)에 비해서는 2만9000명(16.6%) 증가했다.

22개 시·군별로 살펴보면 농업, 임업 및 어업 취업자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신안으로, 전체 취업자(2만2900명)의 68.1%(1만5600명)가 이 부문에서 일을 했다.

농업·임업·어업 취업자 비중은 고흥(56.9%), 함평(54.4%), 전남(49.8%), 곡성(49.1%), 진도(46.1%), 보성(43.7%), 장흥(42.5%), 담양(40.8%), 구례(40.1%), 강진(39.8%), 장성(39.7%), 영광(35.9%), 무안(33.3%), 영암(33.0%), 나주(32.8%) 등 순으로 높았다. 이 비

■ 광주 음식점·주점업 취업자 (단위:명·하반기 기준)



중이 20%를 밀도는 지역은 목포(4.8%), 순천(8.5%), 광양(10.5%), 여수(13.8%), 화순(18.0%) 등 5개 시·군이었다.

전남 취업자는 농업에 이어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만2000명, 소매업 7만1000명, 음식점·주점업 6만7000명, 사회복지서비스업 5만5000명 순으로 많았다. /백희준 기자 bhj@



출발! 함께하는 농촌봉사단  
농협 광주지역본부와 14개 지역농협 임직원 60여 명은 지난 20일 '함께하는 화북농촌봉사단' 시작을 알렸다. 봉사단은 오는 6월까지 매주 화·목요일 일손돕기와 농기계 지원을 펼친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171.66 (-49.04)
↓ 코스닥	1022.22 (-9.66)
↓ 금리(국고채 3년)	1.110 (-0.024)
↑ 환율(USD)	1118.60 (+6.30)

## 지자체·중기 요금 추가 감면 수자원공사, 수도료 등 한 달치

한국수자원공사는 지자체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댐 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을 추가로 감면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지난해와 올해 2월에 이어 추가로 진행되는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댐 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전국 131개 지자체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1100여 곳이 대상이며, 1개월분의 사용 요금을 감면해준다.

수자원공사는 현재 순천시에 댐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구례를 제외한 광주·전남 22개 지자체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다.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가 먼저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등에 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고, 한국수자원공사에 올해 9월까지 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실질적인 감면금액은 각 지자체의 상수도 감면물량과 연계되며, 댐 용수와 광역상수도 사용 비용을 반영해 사용요금의 50%가 감면될 예정이다.

수자원공사가 공급하는 댐 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1100여 곳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4월 사용요금의 70%를 감면받는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혁신성장 소상공인 특례보증 광주신보

광주신보보증재단은 지난 19일부터 스마트·혁신성장 소상공인에 특례보증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보증지원 규모는 업체당 최대 7000만원이다.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 중이거나 고용을 유지·창출한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1억원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이면서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710점(구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키오스크, 모바일 및 온라인 주문·간편결제 시스템을 이용 또는 보유 중이거나, 전자상거래를 영위하는 소상공인이 해당한다.

보증료율은 연간 0.8%, 보증기간은 최대 5년이다. 광주·국민·신한·농협·하나은행 등 13개 시중·지방은행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다.

특례보증을 지원받고 싶은 소상공인은 광주신보 누리집에서 예약상담을 하면 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현대차 '쏘나타 센슈어스' 출시 '원석 깎아낸 듯' 역동적 디자인 엔진별 트림 3종으로 단순화

현대자동차는 '2021 쏘나타 센슈어스'를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쏘나타 센슈어스는 보석의 원석을 기하학적 형태로 깎아낸 듯한 형상의 '파라메트릭 주얼'(Parametric Jewel) 패턴이 적용된 검은색 유광 그릴이 특징이다.

전면 범퍼 사이트에 배치한 에어덕트로 역동적인 디자인을 완성, 검은색 유광 아사이드 미러와 리어 디스플레이가 더해져 범퍼로 스포티한 이미지를 구현했다고 현대차는 설명했다.

현대차는 기존에 엔진 타입에 따라 5가지 트림을

제공했지만, 2021 쏘나타 센슈어스는 엔진별 트림을 3종으로 단순화했다.

또 기존 트림에서 운영하던 일부 선택사양을 기본화해 가솔린 2.0 모델 모던 트림은 버튼 시동&스마트키, 스마트키 원격 시동, 스마트 트렁크, 후방 모니터,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시스템 등을 기본 적용했다.

판매 가격은 가솔린 2.0 모델 ▲모던 2547만원 ▲프리미엄 플러스 2795만원 ▲인스퍼레이션 3318만원으로, 가솔린 1.6터보 모델은 ▲모던 2629만원 ▲프리미엄 플러스 2876만원 ▲인스퍼

레이션 3400만원이다. 2.0LPi모델은 ▲모던 2611만원 ▲프리미엄 플러스 2859만원 ▲인스퍼레이션 3323만원으로, 하이브리드 모델은 ▲모던 2881만원 ▲프리미엄 플러스 3108만원 ▲인스퍼레이션 3635만원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쏘나타는 현대차의 대표 모델이자 국민차로 37년간 사랑받은 뜻 깊은 차종이라며 "이년 2021 쏘나타 센슈어스는 스포티한 디자인과 직관성을 높인 트림 구성으로 고객들에게 세대를 초월해 시대를 반영한 최고의 상품성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xer@

## 국민차 쏘나타, 더 강렬해졌다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 모던 슬라브목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목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062)531-3530, H .010-9229-3530**